

[딜메이커 지창배]

## 2600억 한진 상속세 해결한...경기초등학교 삼총사

윤기쁨 기자 입력: 2026.02.24 06:05

③ 조원태·최윤범 이어준 초등학교 동창 75클럽...세금난 겪던 한진가와 요긴한 거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제공=한진그룹)

재계의 딜메이커 지창배 아카데미 회장 겸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대표는 1975년 생 전후 경기초등학교 동창들과의 사적 인맥을 가장 잘 활용한 비즈니스맨으로 평

가된다. 한국 자본시장에서 그가 크고 작은 '머니 게임'을 벌이면서 유력한 친구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른바 해결사 노릇을 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지창배 회장은 상속세 재원 마련이 시급했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회사 유보금으로 자본차익을 높이려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사모펀드(PEF)라는 매개체로 엮어냈다. 이들의 거래가 단순한 재무적 투자를 넘어 친구끼리의 상부상조 비즈니스가 됐다는 분석이다.

출발점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어온 우정이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40년 지기로 불린다. 두 사람은 경기초등학교 동창으로 재계에서도 막역한 사이다. 이 단단한 우정 사이에서 지창배 회장은 두 사람이 상대적으로 일찍 오너 자리에 오르자 비교적 유명하지 않은 스스로를 레버리지로 은밀한 그들만의 비히클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동갑내기 경기초등학교 동문으로 지창배 대표가 설립한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에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이 5600억원을 몰아줬고 이것이 '한진-고려아연-원아시아'를 잇는 삼각 투자 구조가 완성했다는 분석이다. 원아시아가 설정한 8개 펀드 중 상당수에서 고려아연의 출자 비중이 90%를 상회한다는 점은 이 펀드가 사실상 삼총사의 별도대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 자금의 흐름이 명징하게 드러난 사건은 한진그룹의 상속과정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2019년 조양호 선대회장이 별세하자 약 2600억원의 상속세 부담을 안게 된다. 당장 현금마련이 어렵고 계열사 주식을 정리할 경우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던 터라 조 회장은 주식 담보 대출과 정석기업 지분 매각 등을 활용했다.

조원태 회장은 2020년부터 5년 간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했고, 이 과정에서 정석기업 지분을 팔았다가 다시 사오는 거래를 반복해 세금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비상장 핵심 계열사인 정석기업은 그룹 내 부동산을 관리하며 오너 일가의 자산관리 창구 역할을 해온 곳이다. 원아시아파트너스는 2021년 '저스티스1호' 펀드

를 통해 정석기업 지분 12.22%를 약 500억원에 인수해 재원을 공급해 가장 먼저 백기사가 됐다. 지창배 회장은 조원태 회장과 최윤범 회장의 연결고리를 활용해 고려아연 자금으로 한진가 '백기사'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이 딜은 단순한 지분 투자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상속세 납부와 경영권 방어라는 오너의 사적 이익을 위한 거래였다는 정황이 최근의 지분 흐름에서 더욱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해당 지분은 최근 한진칼이 520억원에 전량 재매입하며 다시 한진그룹 품으로 돌아갔다. 투자 기간 4년 동안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았지만 원금 수준에 다시 되사간 결과는 애초부터 수익 목적이 아니라 상속세 납부를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인 주식 파킹(Parking) 거래였다는 지적이다.

고려아연은 이후 2023년 말에는 한진 오너일가가 보유하던 정석기업 지분 12.22%를 직접 인수해 백기사를 자처하기도 했다. 2025년 5월 한진칼이 해당 지분을 콜옵션을 행사해 전량 다시 사들이며 관계가 정리됐는데 이 역시 우정 거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원태 회장 등 한진 오너가는 이런 도움을 받아 지난해 상속세 연부연납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2019년 6월 한중친선협회 청년 경영인 대표단과 함께 중국 사천성에 방문했다. 청년 경영인 대표단은 사천발전 그룹 본사, 사천에너지투자그룹 본사, 사천성 경제합작국, 사천성 고신기

술개발구 등을 방문했다. 사진 속 인물은 지 대표와(왼쪽부터) 당시 천광호우(陈光浩) 중국 사천성경제합작국 국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다.

(사진=한중신시대우호협회)

지창배 대표의 네트워크는 한진에 그치지 않고 카카오로도 뻗어 나갔다. 원아시아와 카카오는 서로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교환 거래를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원아시아는 카카오 그룹의 아픈손가락으로 불리던 IP 커머스 플랫폼 '그레이고(GRAYGO)'에 약 1000억원을 투자해 최대주주에 오른 적이 있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레이고는 입점 브랜드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임직원이 구속되는 등 카카오 입장에서 처분이 시급한 계열사였다.

카카오는 이후 원아시아의 '코리아그로스1호' 펀드가 인수한 드라마 제작사 아카데미에 350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당시 투자 밸류는 1조원이라는 기업가치를 만들었고 원아시아와 지창배 회장은 한 때 연예계를 호령하는 구심점이 됐다. 이런 의미에서 두 회사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개별적 투자 건을 진행한 파트너로 보이지만 실상은 서로의 치부를 감춰주고 이익을 챙겨주는 사이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카카오와의 밀월은 또 다른 인맥으로 비롯됐다. 원아시아파트너스의 핵심 운용역인 김태영 사장이 키맨이었다는 전언이다. 1977년생인 김 사장은 75클럽의 막내로 활동하며 폭넓은 인맥을 쌓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그는 카카오 투자의 키맨이던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와 끈끈한 친분을 과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인연은 배재현 전 대표가 CJ그룹 미래전략실 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banker와 고객으로 만나면서 시작됐다. 이후 배 전 대표가 카카오로 자리를 옮겨 음원스트리밍 플랫폼 멜론 인수 등 굵직한 M&A를 진두지휘하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신임을 크게 얻자 더 굳건해졌다는 설명이다. 김태영 사장은 이후 카카오가 파생할 거래를 선점하기 위해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재현 전 대표 입장

에서도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 없이 오너의 의중을 빠르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원아시아파트너스가 파트너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사건에서 카카오의 전 자회사였던 그레이고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 사이의 긴밀한 공모 관계를 보여주는 핵심 연결고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SM엔터를 직접 매수할 경우 발생할 공시 의무나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에 있는 그레이고를 매개로 연결된 원아시아의 자금을 우회적으로 동원했다고 판단했다. 2025년 10월 21일 선고된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했지만 소송은 항소심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검찰은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 펀드 자금을 동원해 고가에 주식을 매입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때 동원된 자금줄 중 하나가 바로 '하바나1호' 펀드다. 주목할 점은 이 펀드에 종합 내화물(철강산업 핵심 자재) 제조 기업 조선내화가 고려아연과 함께 500억원을 출자했다는 점이다. 조선내화 이인욱 회장 역시 최윤범 회장, 지창배 대표와 두터운 친분을 자랑하는 인물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라는 투자기구가 재벌들의 친분이나 사적 이해관계로 운용될 경우 금융의 공적인 기능은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기쁨 기자 joyful@dealsite.co.kr